



# '94 농약생산량' 93보다 4.4% 감소

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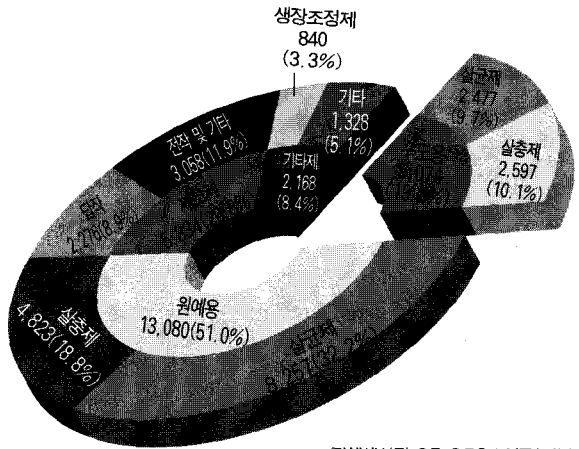
994년도 국내 농약생산량은 2만5천 6백56톤으로 93년도 2만6천8백49톤보다 4.4% 감소했다.

이를 다시 용도별로 살펴보면 수도용농약은 5천74톤으로 전년도 5천9백30톤보다 14.4%나 줄었고, 원예용은 1만3천80톤으로 전년도 1만3천1백15톤에 약간 못미치는 수준이었다. 또 제초제는 5천3백34톤으로 전년도 5천1백78톤보다 3.0% 증가했고 생장조정제 등 기타약제는 2천1백68톤으로 전년대비 17.4%나 감소했다. 이같은 통계는 최근 농약공업협회가 발행한 「1995 농약년보」에 따른 것이다.

이에 따르면 농약매출액은 5천7백9억원으로 93년도 5천3백92억원 보다 5.9% 증가되었고 출하량은 2만6천2백82톤으로 전년도 2만5천9백99톤보다 1.1%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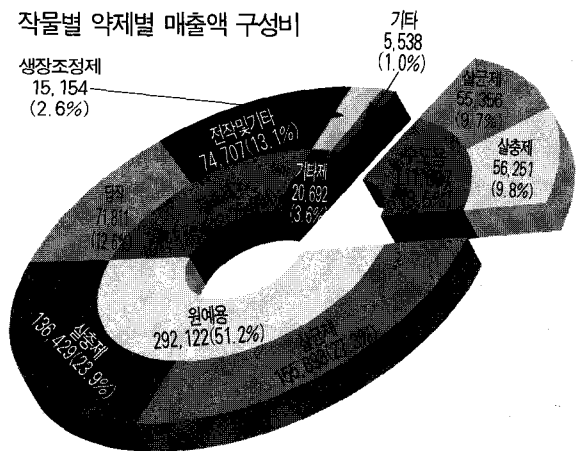
이를 약제별로 보면 살균제가 1만1백19톤(38.5%)이고 살충제가 7천9백99톤(30.4%), 제초제 5천5백6톤(21.0%), 기타제 2천6백58톤(10.1%)으로 전년대비 살균제는 거의 같은 수준, 살충제 4.7%, 제초제 4.5%가 각각 증가한 반면 기타약제는 9.7% 감소했다.

작물별 약제별 생산량 구성비



전체생산량 25,656 M/T(성분량)

작물별 약제별 매출액 구성비



전체매출액 570,939백만원

# 수도용 14% 줄고 원예용도 약간 줄어

작물별 약제별 출하량 구성비



전체출하량 26,282 M/T(성분량)

또 작물별로는 수도용의 살균제는 2천5백33톤으로 전년도 2천5백94톤보다 2.4%, 살충제는 2천9백79톤으로 전년도 3천4백6톤 보다 12.5% 각각 감소했다. 반면 원예용의 살균제는 7천5백86톤으로 전년도 수준이나 살충제는 5천20톤으로 전년도 4천2백36톤보다 18.5%가 증가했다.

또한 제초제중 논잡초약은 2천1백50톤으로 전년 대비 12.0% 증가한 반면 밭 및 과수기타잡초약은 3천3백56톤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출하됐다.

94년도 농약원재료 수입액은 전년도 2억8천8백67만\$보다 8.3%가 늘어난 3억1천2백49만9천\$로 원제가 66%인 2억7백30만7천\$, 합성원료는 30%인 9천4백97만\$, 완제품은 4%인 1천1백9

만5천\$이었다. 원제 2억7백30만7천\$중 살균제가 8천3백5만8천\$, 살충제가 6천5백70만6천\$, 제초제가 5천4백82만2천\$, 기타제가 3백72만1천\$이었다.

수입국별로는 일본이 6천6백24만4천\$ (32%), 독일 4천6백73만2천\$(23%), 미국 3천5백48만3천\$(17%)로 3개국에서 총수입액의 72%가 수입되었고 나머지 28%는 프랑스 등 20여개국에서 수입됐다.

한편 국내합성원제는 1천3백89억원(173,673천\$)으로 총 원제수요 3천48억원(380,980천\$)의 46%

로 국산원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도 수준으로 나타났다.

94년도 농약수출은 4천9백32만\$로 93년도 4천3백30만\$보다 13.9% 늘어났다.

농약원제는 4천7백68만\$로 전년도보다 15.3% 증가한 반면 완제품은 1백64만\$로 15.2% 감소했다. 수출교역국은 이태리(12%), 인도(12%), 대만(11%), 프랑스(7%), 일본(6%) 등 20여개국으로 수출되었다. **농약정보**